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폭력에 속수무책인 사회는 내 탓

고3수험생이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방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결같이 '현재와 같은 입시지옥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만한 일'이라고 진단하고

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가 무심코 하는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미처 몰랐다.

성적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 민의의 전당 국회는 최루탄 연기가 공권력 상징 경찰서장은 폭행 당해 불상생계 수지한 불자부터 자성을

부모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OECD 32개 국가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25위권에 불과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갖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민의 정당인 국회의사당이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는가 하면 서울도심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부대중 칼럼



정규열 한미음과학원

세종, 이도를 배우다

한 공중과 방송의 드라마 한 편에 한 주 한 주가 길게 느껴지며 사는 요즘이다.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오래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세종, 이도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가 닿아 있다.

찰나찰나 각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이해되고 새겨지는지는 종종 잊고 산다. 세종, 이도는 자신이 기획하고 연구하고 매진해 나갔던 한글 창제를 위해서

TV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보며 내가 처한 현실 되돌아보게 돼 내 꿈의 방향 · 열정 · 문제의식 모두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 없어

이 글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재성을 논하고픈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챙겨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누구에게로 가 닿는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본다.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있지만 그것이 추진되고 운영되는 과정과 결과가 낱알이 어디로 수렴되고 있는지 또한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

광화문 광장 한 칸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600여 년 전의 살았던 한 조상님이 요즘 내 삶과 생활로 뛰어 들어와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주인공답게 살라고 고향을 지르고 있다. 늦은 저녁 TV 앞에 앉은 마음이 경건해지고 겸손해진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혁신과 개혁의 안목을 지닌 채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가'이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혁신과 개혁의 안목을 지닌 채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가'이다. 세종 이도는 극 중에서 그려지듯이 가장 모진 가시밭길을 자처해 걸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마저 개의치 않고 항상 그 너머의 보다 나은 이상향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끝으로 '얼마나 몰입하여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일해 나가는가'이다. 일은 누구나 하고 산다.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님 최소한의 효구지책을 위해서라도 모두 일을 하며 산다. 하지만 그 하고 있는 일이

社說

만일 후의 정토를 기다리며

만일결사가 시작됐다. 11월 26일 이번 결사는 탄허 스님의 정신을 잇고 자 시작된 것이다.

일지를 써야 한다. 결사만 따른다면 2000만 불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수행자가 된다.

매일 3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엄불회, <금강경>을 2번씩 읽는 독송회, 1시간씩 좌선을 하는 참선회는 각각의 실천 수행법을 통해

결사를 시작하면서 해거 스님은 "30년의 만일결사는 스스로 인격자가 되기 위해 수행정진하는 운동이요, 평생 살아갈 지침을 세워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만 좋은 것이 아니다. 결사의 주체인 금강선원(선원장 해거)은 5명이 한 팀을 이뤄 한 달에 한번 수행을 살피는 자리를 갖도록 했다.

만일결사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세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의 등불로 삼아, 30년 후 세우려 있을 불국정토에 서 또 한 번 부처님 말씀을 환희분행하기를 고대한다.

동국대 학과구조 개편 신중을

동국대 교정에는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늘고 있다. 학과 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RE-START PROJECT' 최종안 발표 때문이다.

물론 학교 측 입장도 모를 바는 아니다. 하지만, 관련 학과 학생 · 교수 주장대로 학과 통합안의 기준이 취업률 · 재학률에 있다면 분명 시행 전 다시 검토돼야 한다.

CEO식 학교운영에 염증이 컸던 학내 구성원들이 김 총장에 거는 기대는 컸다. 기초 · 인문학에 대한 몰이해도 사라질 줄 알았다.

한 교수가 말하길 "사회적 수요가 없다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떤 학과가 남을 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변함없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학생에게 학과는 정체성이요, 학자에게 전공은 신앙과 같다.

CBU식 학교운영에 염증이 컸던 학내 구성원들이 김 총장에 거는 기대는 컸다. 기초 · 인문학에 대한 몰이해도 사라질 줄 알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일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